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 하 나¹⁾

강 혜 영²⁾

정 익 중³⁾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가족 스트레스 모델을 기반으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스트레스 과정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문제적 행동과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로에서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8, 9, 10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총 1,598가구를 포함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부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적 행동 간의 순차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부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아동의 행동 발달에 이르기까지의 경로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감소를 야기하고, 이는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졌다. 부정적 양육행동은 결국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부정적 양육행동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다양한 경로에서 그 부정적인 지표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의 행동 발달 간의 순차적 관계에서 가족 스트레스의 이론적 모형을 실증적으로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경제적 어려움, 가족 스트레스 과정, 사회적 지지, 아동 행동

1)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조교수

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3)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mail: ichung@ewh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절대적 아동빈곤율은 2010년 4.8%에서 2016년 3.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회보장위원회, n.d.).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생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 아동의 비율이 이제는 꽤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다소 낮아졌던 절대적 아동빈곤율과 달리 OECD 국가별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 아동빈곤율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아동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상대적 아동빈곤율은 15.2%로 OECD 평균인 13.1%보다 약 2.1% 높은 수준을 보였다(사회보장위원회, n.d.). 이처럼 우리나라의 상대적 아동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적 풍요 속에서 빈곤으로 고통받는 아동은 적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준다. 오히려 아동 빈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제 더 이상 절대적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여유진, 2018), 그리고 ‘빈곤의 함정’에 빠져 부모 세대의 빈곤이 자식 세대로 끝없이 대물림되는 빈곤의 만성화(정익중, 2005)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대적 아동빈곤율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물질적 자원의 결핍이 미치는 다차원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아동종합실

태조사에서 아동결핍수준을 조사해 오고 있다(류정희, 2020).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0-17세 아동의 결핍수준은 31.5%로 2013년 54.8%에 대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아동결핍지수를 EU 국가들과 비교한 수치를 살펴본다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2018년 기준 대부분의 유럽 선진 국가들의 아동결핍지수는 10% 미만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물질적 결핍은 헝가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류정희, 2020).

아동의 빈곤은 특히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이는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본인의 가정환경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 없으며 특히 빈곤한 가정의 아동은 오랜 시간 빈곤의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다양한 부정적 경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Brooks-Gunn, Duncan, & Maritato, 1997). 빈곤하다는 것은 아동이 적절한 영양분이 갖춰진 식사를 하거나 깨끗한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자라며 필요한 교육 및 여가활동을 하는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Brooks-Gunn et al., 1997).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빈곤과 아동의 발달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어왔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빈곤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의 영역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Bradley & Corwyn, 2002; Brooks-Gunn et al., 1997; Letourneau, Duffett-Leger, Levac, Weston, &

Young-Morris, 2013; McLoyd, 1998). 예를 들어, 빈곤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빈곤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권은선, 구인회, 2010). 이는 빈곤한 아동일수록 적절한 예방 및 치료의 접근이 어렵고 영양실조나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 가정의 아동은 저체중으로 태어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이봉주, 2007), 빈곤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빈곤 아동보다 더 부정적인 발달 상태로써 출발선에 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빈곤은 아동의 인지발달 및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Brooks-Gunn et al., 1997; Chaudry & Wimer, 2016) 어린 시절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청소년기에 빈곤 경험을 겪은 아동보다 학교 이수율이 더 낮았다(Brooks-Gunn et al., 1997). 또한 빈곤 아동은 비빈곤 아동에 비하여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우울·불안, 공격성, 비행 등과 같은 발달 산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아동의 행동 및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도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련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행동 및 사회정서적 산물에 대해 다양하게 개념화, 조작화되는데 주로 외현화 및 내재화된 문제행동, 손상된 사회정서적 기능 등을 다루고 있다(Lee, Lee, & August, 2011; Lee & Lee, 2016; Neppl, Senia, & Donnellan, 2016).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대상인 초등학교(만 6-12세) 아동의 경우, 아동발달상의 관점에서 중대한 발달과업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써, 증대된 인지능력, 사회적 관계의 발

달, 자기 통제 등과 같은 주요 인지적, 행동적, 그리고 사회정서적 기능들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이다(Collins, Madsen, & Susman-Stillman, 2002; DelGiudice, 2018; Eccles, 1999; Mah & Ford-Jones, 2012). 이처럼 주요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하여 발달 상의 중요한 시기를 잘 넘어간다면 이후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그 긍정적인 영향(예: 보다 나은 학업 성취도 혹은 취업률, 보다 낮은 확률의 정신건강문제 혹은 위험행동 등)이 미치게 되지만(Duncan, Ziol-Guest, & Kalil, 2010; Kia-Keating, Nylund-Gibson, Kia-Keating, Schock, & Grimm, 2018), 그렇지 않을 경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아동의 행동 및 사회정서적 발달 부분에 근접적으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초기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청소년기의 더 큰 문제행동 혹은 비행, 더 나아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수 있는 부정적 산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아동기의 문제행동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Weaver, Shaw, Dishion, & Wilson, 2008).

이처럼 빈곤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아동기에 빈곤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부정적 영향들은 빈곤이라는 단일 위험뿐 아니라 빈곤 상황 내에서 중첩적이고 누적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와는 반대로 보호요인은 더욱 빈약한 환경 속에 있게 된다(장희선, 김기현, 2014).

빈곤과 아동 발달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실증적 연구 이후에는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그 중간적 경로, 즉 매커

니즘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기 시작하였고, 가족은 이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요소로 작용하였다(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 Elder, Eccles, Ardel, & Lord, 1995; Sampson & Laub, 1994). 아이는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들의 가족이나 그들이 속한 문화에 사회화되는 과정을 학습하는데(Engle & Black, 2008), 빈곤한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가족의 스트레스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고 심리적 격려 및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빈곤하지 않은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빈곤과 아동의 발달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이를 가족 내 역기능이 매개함을 밝혀왔다. 빈곤 혹은 경제적 결핍으로부터 유발되는 만성적인 경제적 압박은 부모의 대처 행동, 우울, 그리고 부부 간의 불화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비관여적이고 비일관적이며 감정적인 무반응, 가혹한 양육 행위 등을 보이며, 이는 결국 아동의 사회정서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이은혜, 이정립, 김명순, 전해정, 2010; Eamon, 2001; Engle & Black, 2008). 아동의 문제행동은 불안, 우울, 위축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반항, 공격성과 같은 외면화 문제행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Achenbach & Edelbrock, 1983), 빈곤에서 야기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아동의 문제행동에는 우울, 외로움, 약물사용(Lemper, Clark-Lempers, & Simons, 1989), 신체적 공격(이경혜, 김정일, 2011) 등이 포함된다. 빈곤이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양육효능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최형성, 2005a),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문제적 양육행동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Coleman & Karraker, 1998). 즉,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높이 하고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현옥, 박해선, 2018; 이상균, 유조안, 2015; Weaver et al., 2008).

빈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 기능의 매개적 역할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족 스트레스 모델(Family Stress Model [FSM])이 적용된다(Conger, Conger, & Martin, 2010). 가족 스트레스 모델은 빈곤 아동의 발달 그리고 부모의 정신건강 및 양육태도와 같은 요소들의 매개적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은 가족 스트레스 모델(Conger et al., 2010)의 이론적 틀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여준다. 이 모델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재정적 압박 및 스트레스의 경험은 가족의 다양한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압박이 높을수록 부부 구성원의 우울, 불안, 분노, 소외 등의 정신적 고통 및 약물 사용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행동 장애의 위험이 증가한다. 양육자의 정서 및 행동 문제는 부부 간의 지지적 행동이나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부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양육자 간의 갈등은 가혹하고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아동의 행동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Conger et al., 2010). 다시 말해서, 빈곤한 가정의 부모는 빈곤으로부터 받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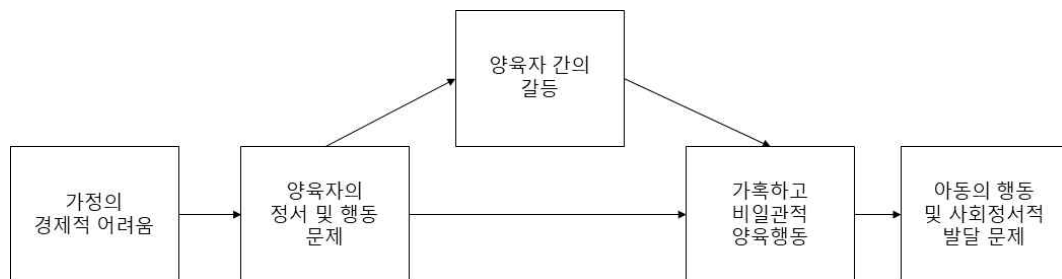


그림 1. 가족 스트레스 모델(Conger et al., 2010)

해 정서 및 문제적 행동, 부정적 양육방식 등을 보이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Conger et al., 2010). 이처럼 경제적 역경이 야기하는 양육자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 양육 스트레스, 부정적 양육행동 등은 가족 스트레스 과정(family stress processes)의 대표적인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가족 스트레스 모델은 경제적 어려움, 양육자의 부정적 기능, 그리고 아동의 문제적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핵심 개념들 간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순차적인 경로를 탐색하는 데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처럼 빈곤과 아동의 발달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어 메커니즘을 밝혀왔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메커니즘의 영향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McLoyd, 1998). 아동의 특성이나 특정한 환경적인 조건은 이러한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낙관적인 성격, 대처 방식, 개인적 통제력,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자원들은 빈곤과 아동 발달 간의 관계에서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하며 조절변수로 나타나기도 하였다(Taylor & Seeman, 1999). 따

라서 개개인의 아동의 특성 및 아동이 속해 있는 상황이 모두 상이함을 이해하고, 빈곤이 야기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보고하는 것과 같이 빈곤은 아동의 삶에 있어 다방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빈곤의 경험은 아동의 삶에 있어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빈곤을 경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적응수준을 가진 아동도 존재한다(정익중, 김세원, 2011; 정익중, 민성혜, 박은미, 신혜원, 전해정, 2013). 따라서 빈곤이라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핍에만 초점을 두어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의 긍정적인 가족의 역량 및 강점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동이 가질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는 자아효능감, 효과적인 대처기술, 교육, 건강, 내적 통제성 등의 개인적 수준의 보호요인과 가족 구조, 가족 응집력, 지지적인 부모-자녀 상호

작용, 부모의 사회적 지지 및 자원 등의 가족적 단위의 보호요인, 그리고 지역사회 관여, 또래 수용, 지지적인 멘토, 안전한 지역 등의 지역사회적 보호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Benzies & Mychasiuk, 2009). 특히, 가족영역의 보호요인은 아동에게 있어 중요한 요인인데, 대부분의 아동은 출생 직후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삶에서 그들의 부모와 가깝게 지내며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아동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족영역의 요인 중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녀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정보나 충고 등을 의미하는 정보적 지지와 서비스, 재정적 지원, 구체적 원조, 물품과 같은 도구적(혹은 물질적) 지지,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애정, 돌봄 등으로 타인으로부터 본인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지지로 분류된다(Taylor, 2011). 따라서 사회적 지지란 타인으로부터 받은 도움으로, 본인이 존중되거나 가치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인식 및 경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 친척, 친구, 동료, 사회적 공동체적 유대, 그리고 애완동물까지도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Allen, Blascovich, & Mendes, 2002).

빈곤과 사회적 지지를 다룬 선행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의 인지발달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김경은,

2012).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 중 친구 및 동료로부터 받는 지지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문제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갑순, 박윤조, 2016).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이는 자녀의 반응 및 정서와 같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또한 어머니가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자녀와 어머니 간의 애정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으며(Crockenberg, 1981),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호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양진희, 2016), 어머니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와 어머니의 애정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빈곤으로부터 아동이 받게 되는 부정적인 발달의 영향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아동 빈곤의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주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의 행동 및 사회정서적 발달,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확인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영유아기(김갑순, 박윤조, 2016; 김경은, 2012; 양진희, 2016; Baker, Kainz, & Reynolds, 2018; Berger, Paxson, & Waldfogel, 2009; Choi, Palmer, & Pyun, 2014; Crnic et al., 1983; Zilanawala & Pilkauskas, 2012) 혹은 청소년기 아동(Burrell & Roosa, 2009; Hardaway, Larkby, & Cornelius, 2014; Landers-Potts et al., 2015; Taylor, Budescu,

Gebre, & Hodzic, 2014)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아동의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초등학교 아동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는 아동의 다양한 발달 기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Weinger, 1998a; Weinger, 1998b).

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역경과 아동의 발달을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횡단적 자료를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횡단적 자료는 핵심변수 간의 동시성 편향(simultaneity bias)의 문제에 취약하고 이는 결국 인과추론에 대한 한계를 갖는다(박현선 등, 2006; Conger et al., 2002; Dennis, Parke, Coltrane, Blacher, & Borthwick-Duffy, 2003; 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 Lee et al., 2011; Parke et al., 2004).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패널의 종단적 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하여 가족 스트레스 모델(Conger et al., 2010)의 이론적 구조를 바탕으로 주요 변수들의 측정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인 경로를 모색함으로써 핵심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추론하였다(Stone & Rose, 2011).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이차자료분석(secondary data analysis)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 분석에 포함되는 주요 변수들을 선정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인 가족 스트레스 모델을 바탕으로 각 주요 시점에 적합한 핵심 변수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아동패널 8, 9, 10차연도

의 어머니(주양육자)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의 경제적 역경과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가족 스트레스 과정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강점관점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다양한 경로에 있어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8차(2015년), 9차(2016년), 그리고 10차(2017년)연도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최종 연구대상자는 1,598가구를 포함한다. 연구 자료의 8차연도(2015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최종학력은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 졸업 이

상이 약 70.9%, 고등학교 졸업이 28.7%, 그리고 초·중학교 졸업이 0.4%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전문대 졸업 이상이 약 73.4%, 고등학교 졸업이 26.2%, 초·중학교 졸업이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의 경우, 어머니는 37.9세($SD = 3.7$, range = 26-54), 아버지는 40.3세($SD = 4.0$, range = 26-56)이다. 아동의 경우, 평균 연령은 88개월($SD = 1.6$, range = 84-92)이고, 남아는 약 51.1%, 여아는 48.9%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단위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가족 구성원의 총 수는 4.3명($SD = .8$, range = 2-8)이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63만원($SD = 201.4$, range = 28-2000)이다.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이 42.4%, 중소도시는 41.0%, 읍/면의 경우 16.6%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Conger와 동료들(2010)의 Family Stress Model(FSM)의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한국아동패널의 8, 9, 10차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각각의 주요 변수들 간의 시차를 두고 측정 시기를 달리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8차연도)은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9, 10차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가족 스트레스 과정의 대표 척도), 이러한 과정은 결국 아동의 문제적 행동(10차연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FSM의 주요점이다. 비록 이차자료분석이지만 경제적 역경-아동 및 가족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횡단적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을

순차적(temporal order)으로 배치하여 한국아동패널의 종단적 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함과 동시에 독립-매개-종속변수의 인과적 관계성을 입증함에 있어 보다 더 유리한 해석이 가능하다. 표 1은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항목 및 측정내용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여준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표 1에서 보여주듯이,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8차연도(2015년) 연구 자료에서 추출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즉 경제적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으로 구분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n = 44$, 2.8%); (2) 정부로부터 생활비 지원(예: 정부보조금,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등 포함)을 받은 경우($n = 107$, 6.7%); (3) 가구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n = 221$, 13.8%); 그리고 (4)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가구원의 총 수를 활용하여 조작한 최저생계비의 120%에 속하는 차상위계층($n = 102$, 6.4%)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생활비 지원 수급 가정의 경우를 1,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가정을 0으로 코딩하였다. 이처럼 가정의 경제적 역경을 암시할 수 있는 총 4개의 이분화한 항목을 이용하여 0점에서 4점으로 이루어진 연속변수로 조작하였고, 이 연속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1. 주요 변수

변수	항목	대표문항 및 측정내용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
	정부의 생활비 지원 수급	정부보조금(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기타 보조금 등) 수급 여부
	가구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1(최하의 삶으로 재산이 거의 없고 교육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으며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직업을 보유)에서 10(최상의 삶으로 가장 재산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보유)까지의 구조에서 주관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위치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2015년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과 가구 구성원의 총 수를 활용하여 최저생계비의 120%를 산출
가족 스트레스 과정 (매개변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긍정적 문항과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등의 부정적 문항으로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이가 상처받거나 좌절했을 때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아이와 농담을 하고 놀아주기도 한다’ 등의 긍정적 양육행동 및 ‘아이가 잘못했을 때 소리를 지르곤 한다’, ‘아이의 행동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아이를 꾸짖거나 비난한다’ 등의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총 62개의 문항으로 구성
사회적 지지 (조절변수)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세 가지 유형의 지지로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 1) 정서적 지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등 2) 물질적 지지: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급하게 돈을 써야할 때 빌려준다’ 등 3) 정보적 지지: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등
아동의 문제행동	외현화 행동	1) 규칙위반(총 17개의 문항): ‘잘못된 행동(버릇없이 굴거나 나쁜 짓)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지 않다’, ‘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규율을 어긴다’ 등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문제행동들을 총동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들 2) 공격행동(총 18개의 문항): ‘말다툼을 많이 한다’, ‘자기 물건을 부순다’ 등 언어적, 신체적으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적대적인 태도와 관련된 문항들
	내재화 행동	1) 불안/우울(총 13개의 문항): ‘잘 운다’,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거나 긴장되어있다’ 등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해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들 2) 위축(총 8개의 문항): ‘즐기는 것이 매우 적다’,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등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 주변에 대한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 등과 관련된 문항들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변수)	아동	나이, 성별
	부모	나이, 최종학력 수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가족 스트레스 과정(Family Stress Processes)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본 연구의 주요 매개변수로써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 효능감을 포함하였다. 대체로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나 신념,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직면하더라도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안지영, 박성연, 2002; 최형성, 2005b).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9차연도(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해당하는 문항의 예로써,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등으로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항상 그렇다[5])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효능감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총 16개의 문항 중에서 긍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역코딩(reverse coding)하였다. 18점에서 62점으로 이루어진 이 연속변수의 Cronbach's alpha 값은 .87이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본 연구의 또 다른 주요 매개변수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총 62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이 섞인 형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아이가 상처받거나 좌절했을 때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아이가 노력한 것이나 성취한 것에 대해 인정해 준다.” 등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관한 질문과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이를 때리기도 한다.”, “설명 없이 아이의 권리를 빼는 벌을 주기도 한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이를 밀치기도 한다.” 등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측정하였다. 해당 질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아짐을 나타내기 위해 긍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역코딩하였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94이다.

사회적 지지

본 연구의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는 한국아동패널의 9차연도(2016년) 자료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지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친가 및 외가 식구, 친구 및 지인들로부터 받는 다양한 유형의 도움 및 지지에 관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예를 들어, 정서적 지지(“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도구적 혹은 물질적 지지(“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정보적 지지(“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등이 포함된 총 1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17점에서 65점으로 이루어진 연속변수로 조작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93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이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의 문제적 행동 간의 다양한 경로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연구대상자를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보통-높음)으로 나누었다. 즉 연속변수의 사회적 지지를 이용하여 평균보다 1 표준편차가 낮은 경우를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으로 조작하였고, 그 외의 경우를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보통에서 높은 집단으로 정의하여 이분변수로 조작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

주요 종속변수인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은 한국아동패널의 10차연도(2017년) 자료, 즉 아동이 만 9세 때의 문제행동(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만 6세에서 1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 (오경자, 김영아, 2010)를 활용하여, 내재화 행동은 1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불안/우울(“잘 운다.”,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거나 긴장되어 있다.”,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과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위축(“즐기는 것이 매우 적다.”,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로 측정되었다. 외현화 행동

은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규칙위반(“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규율을 어긴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지 않다.”)과 1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공격성(“자기 물건을 부순다.”, “싸움을 많이 한다.”)으로 조사되었다.

내재화 행동에 포함되는 불안/우울 그리고 위축 이 두 변인을 활용하여 내재화 행동의 연속변수로 조작하였을 시 Cronbach's alpha 값은 .78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현화 행동의 경우, 규칙위반 그리고 공격성 이 두 변인을 활용하여 조작한 연속변수로써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80이다. 각 연속변수의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심각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통제변인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박현선 등, 2006; Berger et al., 2009; Neppl et al., 2016)의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종속변수인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및 양육자 레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의 나이 및 최종학력 수준, 아동의 성별 및 나이, 거주지역을 포함하였다. 먼저, 부모 및 아동의 나이의 경우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만 세; 개월). 부모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집단(reference group = 1)으로 설정하였고, 초·중학교 졸업(2)과 전문대 졸업 이상(3)으로 설정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0)를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여아 = 1). 거주 지역은 대도시(기준집단 = 1), 읍/면(2), 그리고 중소도시(3)로 구분하였다. 가구의 월평균 소

득 및 가구원의 총 수에 대한 정보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의 변수 조작화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통제변인으로는 포함하지 않았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측정하였고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탐색하기 위해 편상관관계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제 3의 통제변수 없이 주요 변인들을 한꺼번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일반적인 상관관계분석과 비교하였을 때, 편상관관계분석법은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변수 및 제 3의 변수들을 모두 통제함으로써 관심 변수들 간의 보다 더 엄격한 상관관계를 제시할 수 있다(Abdi, Dowling, Valentin, Edelman, & Posamentier, 2002). 다만 통제변수를 설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단순한 상관계수에 비해 편상관계수의 규모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산출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이훈영, 2013).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Conger와 동료들(2010)의 가족 스트레스 모델(FSM)의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가족의 스트레스 과정(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부정적 양육행동)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의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 분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기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얻는 간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다 더 철저한 표준 오차와 95% 신뢰도 구간의 검정 값으로 뒷받침해준다. 특히, 95% 신뢰도 구간에서의 검정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4). 분석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2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Comparative Fit Index(CFI), 그리고 Tucker-Lewis Index(TLI)의 지수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RMSEA은 그 수치가 .05이하일 경우, CFI와 TLI는 .90 혹은 .95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된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다음으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의 행동 발달 간의 다양한 경로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분변수로서의 사회적 지지(낮음 vs. 보통-높음)를 활용하여 주요 독립 및 매개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구조 계수의 기울기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지 두 집단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Stata 프로그램에서 'group' 명령어와 'ginvariant' 옵션을 활용한다(Acock, 2013).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구조적 계수와 절편, 측정 계수, 구조 오차의 공분산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자유로운, 미제약 모형(a free, unconstrained model)과 두 집단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구조 및 측정 계수가 모두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제약 모형(a constrained model) 각각을 추정한 다음, 이

두 모형 간의 카이제곱 차이 검정(chi-square difference test)을 바탕으로 측정동일성과 구조 동일성을 확인한 이후 최종 단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유의한 경로계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Elsaesser, Gorman-Smith, Henry, & Schoeny, 2020).

모든 자료분석은 Stata 16(Stata Corp LLC, College Station, TX,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연구 자료의 결측치는 Stata 프로그램의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with Missing Values [MLMV])을 통하여 결측값을 가지는 연구대상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모형 분석에 활용되도록 처리하였다. Stata의 MLMV 추정법은 Mplus의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다중 대체 방식(Multiple Imputation [MI]) 보다는 더 효율적이면서도 덜 편향적인 것으로 알려졌다(Allison, 2003; 2012).

III. 결과 및 해석

1.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총 매개(간접)효과

표 2는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되는 주요 변인들의 편상관관계분석(partial correlations) 결과를 보여준다. 편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및 부모와 관련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예: 부모의 나이 및 최종학력 수준, 아동의 성별 및 나이, 가족의 거주지역)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가족 스트레스 모델의 이론적 근거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r = .05, p < .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어머니의 낮은 수준

표 2. 주요 변인들의 편상관관계분석

($N = 1,598$)

변인	1	2	3	4	5	6	7	8
1.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03	-						
3.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05*	.57***	-					
4. 규칙 위반	-.03	-.02	.07*	-				
5. 공격성	.03	.04	.08**	.47***	-			
6. 불안/우울	-.03	.04	.08**	.08**	.34***	-		
7. 위축	.06*	.00	.06*	.10***	.15***	.46***	-	
8.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01	-.07**	-.14***	.02	.00	.02	-.08**	-
평균	.30	40.4	138.4	53.9	53.1	53.3	53.3	50.0
표준편차	.63	7.1	21.3	5.3	5.3	5.5	5.3	7.5
점수범위	0-4	18-62	76-201	50-100	50-99	50-100	50-100	1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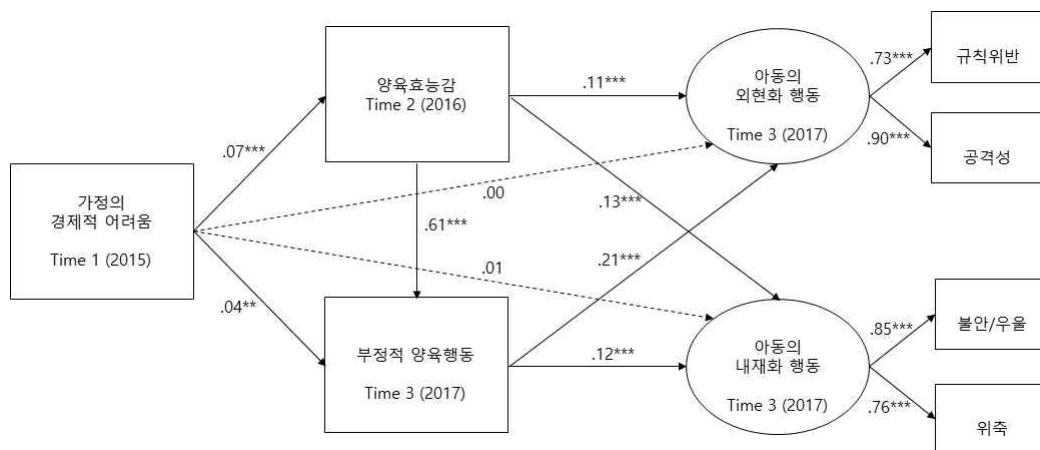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의 양육효능감은 부정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r = .57, p < .001$). 이러한 양육자의 부정적인 요소는 아동의 문제적 행동과도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규칙 위반($r = .07, p < .05$), 공격성($r = .08, p < .01$), 불안/우울($r = .08, p < .01$), 그리고 위축($r = .06, p < .05$)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조절변수로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낮은 수준의 양육효능감($r = -.07, p < .01$), 부정적 양육행동($r = -.14, p < .001$), 그리고 아동의 위축($r = -.08,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아동 및 부모와 관련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하고, 가족 스트레스 모델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모와 관련된 매개요인, 즉 가족의 스트레스 과정의 대표적인 변수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부정적 양육

행동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의 문제 행동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매개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그림 2와 표 3은 연구모형에서 각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제시한다. 특히 그림 2는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을 함께 포함시킨 다변량 구조방정식 모형(a multivariate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분석한 결과로서, 주요 구조모형 분석 결과인 경로계수와 함께 측정모형의 결과인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결과 모두 보여준다. 이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21) = 57.08, p < .001$; RMSEA = .033; CFI = .989; TLI = .967 등의 다양한 지수를 고려하였고, 그 결과 본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그림 2에서 보여준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문제행동(외



주.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추정치(β)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분석

표 3.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β	<i>SE</i>	<i>z</i>	<i>p</i>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양육효능감	.07	.01	8.07	.000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부정적 양육행동	.04	.01	2.87	.004
양육효능감 → 부정적 양육행동	.61	.02	28.31	.000
양육효능감 → 아동의 외현화 행동	.11	.02	4.71	.000
양육효능감 → 아동의 내재화 행동	.13	.01	9.28	.000
부정적 양육행동 → 아동의 외현화 행동	.21	.01	15.53	.000
부정적 양육행동 → 아동의 내재화 행동	.12	.02	6.32	.000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아동의 외현화 행동	.00	.02	.22	.822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아동의 내재화 행동	.01	.02	.63	.530

* $p < .05$. ** $p < .01$. *** $p < .001$.

현화 및 내재화 행동)의 잠재변인에 대한 각각의 측정변인의 요인부하 값(factor loading values)이 Kline(1994)에서 제시한 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모두 적절한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의 경우 요인부하값의 범위가 .73에서 .90으로 각각의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상관성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측정변인들이 각 잠재변인의 추상적인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2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결과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유의한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 독립변수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매개변수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부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종속변수인 아동의 문제행동 변인들 간의 직접, 총 간접, 그리고 전체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를 표 4에서 제시한다. 먼저 전체효과를 보았을 때,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내재화 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부정적 양육행동에 의해 완전매개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총 매개(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의한 간접(매개)효과를 바탕으로 그림 2에서 제시한 주요 변인들 간의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낮은 수준의 양육효능감 및 부정적 양육행동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beta = .07$, $p < .001$; $\beta = .04$, $p < .001$). 또한, 가족 스트레스 과정의 매개 변인들(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부정적 양육행동) 간 상당히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beta = .61$, $p < .001$).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외현화 및

표 4.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머니 매개요인의 총 간접효과 검증

경로			직접효과 [95% CI]	총 간접효과 [95% CI]	전체효과 [95% CI]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양육효능감 & 부정적 양육행동	→ 아동의 외현화 행동	.02 [-.01, .06]	.16*** [.11, .21]	.18*** [.17, .20]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양육효능감 & 부정적 양육행동	→ 아동의 내재화 행동	.09 [-.01, .20]	.15*** [.08, .21]	.24*** [.07, .42]

주. 제시된 계수는 비표준화 추정치(B)임. CI = confidence interval.

* $p < .05$. ** $p < .01$. *** $p < .001$.

내재화 행동 모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beta = .11, p < .001$; $\beta = .13, p < .01$), 마찬가지로 부정적 양육행동 역시 아동의 각각의 문제행동과도 유의한 정적 연관성을 보였다($\beta = .21, p < .001$; $\beta = .12, p < .001$).

2.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어머니의 매개요인, 그리고 아동의 문제적 행동 간의 다양한 경로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 및 부모와 관련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하고, 연구대상자를 사회적 지지의 수준(낮음 vs. 보통에서 높음)에 따라 나눈 이분화한 집단변수를 활용하여, 가정의 경

제적 어려움 및 어머니의 매개변인이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모형에 대한 형태동일성을 검증한 후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본 연구모형이 두 개의 사회적 지지 집단(낮음 vs. 보통-높음) 각각에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형태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각 모형의 적합도는 표 5와 같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은 $\chi^2 = 29.76(p = .097, df = 21)$; RMSEA = .043; CFI = .982; TLI = .945, 사회적 지지가 보통에서 높은 집단은 $\chi^2 = 50.23(p = .000, df = 21)$; RMSEA = .033; CFI = .989; TLI = .967로 두 사회적 지지 집단 모두에서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

표 5. 기저모형의 사회적 지지 집단별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RMSEA	CFI	TLI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n = 227$)	29.76	21	.043	.982	.945
사회적 지지가 보통-높은 집단($n = 1,253$)	50.23	21	.033	.989	.967

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사회적 지지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두 사회적 지지 집단에 대한 요인계수(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연관성 제시)가 동일하다고 제약한 완전 측정동일성 모형과 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하지 않은 기저모형 간의 χ^2 값 및 자유도 차이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RMSEA = .035$; $CFI = .986$; $TLI = .963$ 으로 적합한 수준을 보였고, 완전측정동일성 모형과의 χ^2 값의 차이는 4.34, 자유도 차이는 4, 그리고 $p = .36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 간의 완전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이는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요인에 대해 집단 간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완전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마지막 단계인 구조동일성 검증을 위해 두 사회적 지지 집단에 대한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하지 않은 기저모형(완전측정동일성 모형)과 완

전구조(경로)동일성 모형 간의 χ^2 값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저모형과 완전구조동일성 모형 간의 χ^2 값의 차이는 62.31, 자유도 차이는 37, 그리고 $p = .00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두 집단 간의 구조계수가 동일하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즉 두 모형 간의 경로계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집단의 각 경로에 대한 제약을 하나씩 해제하고 χ^2 값의 차이와 모형적합도를 확인하며 부분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그림 3과 표 8에서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부정적인 지표에 대한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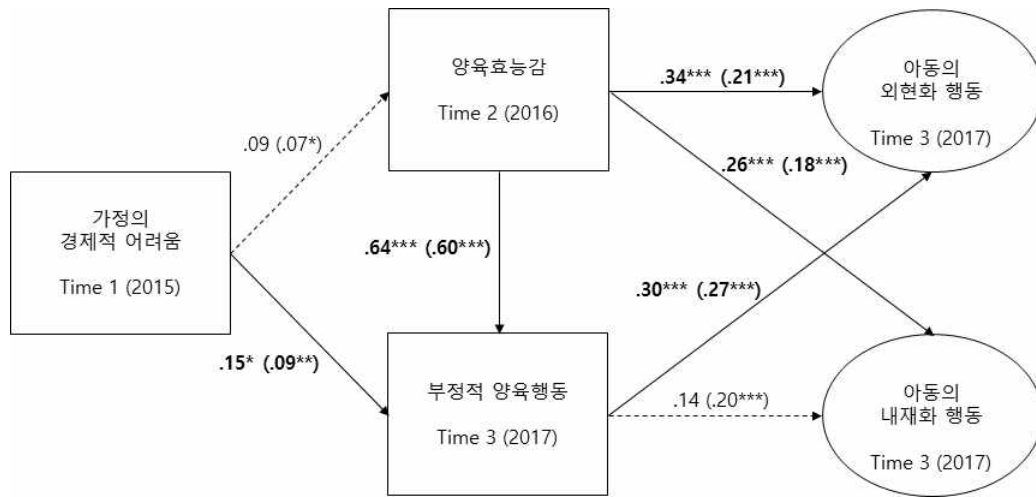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보통에서 높은 집단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그 정도가 더 높고($\beta = .15, p < .05$ vs. $\beta = .09, p < .01$),

표 6. 측정동일성 검증

구분	χ^2	df	$\Delta\chi^2$	Δdf	p	RMSEA	CFI	TLI	검증결과
기저모형	92.36	48	-	-	.000	.035	.986	.963	-
완전측정동일성 모형	88.02	44	4.34	4	.361	.037	.986	.960	성립

표 7. 구조동일성 검증

구분	χ^2	df	$\Delta\chi^2$	Δdf	p	RMSEA	CFI	TLI	검증결과
기저모형	88.02	44	-	-	.000	.037	.986	.960	-
완전구조동일성 모형	150.33	81	62.31	37	.006	.034	.978	.966	기각
부분구조동일성 모형	120.58	79	32.56	35	.586	.027	.987	.979	성립



주.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추정치(β)임. 왼쪽 계수(괄호 밖)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 오른쪽의 괄호 안에 있는 계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보통-높은 집단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다집단 조절효과분석

표 8. 다집단 조절효과분석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β	SE	z	p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양육효능감	.09 (.07)	.07 (.03)	1.36 (2.41)	.172 (.016)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부정적 양육행동	.15 (.09)	.07 (.03)	2.05 (3.14)	.041 (.002)
양육효능감 → 부정적 양육행동	.64 (.60)	.04 (.02)	13.42 (30.73)	.000 (.000)
양육효능감 → 아동의 외현화 행동	.34 (.21)	.07 (.03)	4.78 (6.76)	.000 (.000)
양육효능감 → 아동의 내재화 행동	.26 (.18)	.07 (.03)	3.51 (5.52)	.000 (.000)
부정적 양육행동 → 아동의 외현화 행동	.30 (.27)	.07 (.03)	4.08 (8.56)	.000 (.000)
부정적 양육행동 → 아동의 내재화 행동	.14 (.20)	.07 (.03)	1.80 (5.91)	.072 (.000)

주. 왼쪽 값(괄호 밖)은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 오른쪽의 괄호 안에 있는 값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보통-높은 집단을 나타냄.

* $p < .05$. ** $p < .01$. *** $p < .001$.

양육효능감에서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의 경로에서도 그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beta = .34$, $p < .001$; $\beta = .26$, $p < .001$ vs. $\beta = .21$, $p < .01$; $\beta = .18$, $p < .001$).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beta = .30$, $p < .001$ vs.

$\beta = .27, p < .001$).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어머니의 매개요인을 통해 아동의 문제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양육자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그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적 지지가 낮은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제적 행동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족 스트레스 모델의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가족의 스트레스 과정의 대표적인 변수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부정적 양육행동이 가정의 빈곤 혹은 저소득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다양한 경로에 있어서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방식 등과 같은 가족의 스트레스 과정이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유의한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부모와 관련된 요인들이 이 주요 관계를 매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부정적 양육행동은 결국 아동의 외현화 및 내

재화 행동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적 실천 개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빈곤을 경감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빈곤 퇴치 정책 및 사회적 프로그램과 더불어 예방 차원의 가족 중심의 개입 또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 양육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 및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 독려 등과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접근이 용이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Berger & McLanahan, 2015; Burgdorf, Szabó, & Abbott, 2019; Harandi, Taghinasab, & Nayeri, 2017).

다음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요 연구문제인 양육자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사회적 자원 및 지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나누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의 매개 요인을 거쳐 아동의 문제행동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경로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 각각의 부정적인 지표에 대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가정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외현

화 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 그 부정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양육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자원 및 지지의 여부와 그 수준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겪는 육아 부담감(혹은 양육효능감)이나 양육방식,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에도 상이한 수준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한다.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간의 긍정적 관계는 이미 많은 실증적 연구에서 증명되었다(Harandi et al., 2017). 특히, 어린 아동을 키우는 많은 가정에서 육아에 대한 압박감과 양육자 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스트레스는 가족의 긍정적인 역동성에 저해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및 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지지 및 격려뿐만 아니라 양육자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기반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지인들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창구를 확보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Harandi et al., 2017).

이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두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의 경로와 부정적 양육행동에서 아동의 내재화 행동에 대한 경로가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기할 수 있는 이유로는 먼저, 전체 연구대상자의 약 15%가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 속하고 이 중에서도 평균 이상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부정적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은 가구의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이는 정확한 구조

계수가 산출되지 않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효능감 간의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의 그 부정적인 경로계수의 크기가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보통-높은 집단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계수의 규모 차이를 보았을 때는 그 실제적 유의성 측면에서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자료의 수량적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연구 가설과 상반되는 결과에 대해 보다 더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재화 간의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보통-높은 집단에서 그 부정적인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경로들과 비교하였을 때 영향의 방향성에 있어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부모가 사회적 지지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제공하려고 하는데(Scannell, 2020), 이것이 지나칠 경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너무 간섭을 하거나 혹은 과잉보호하게 되는 양육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는 결국 높은 수준의 아동의 내재화 행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연구(Bayer, Sanson, & Hemphill, 2006)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 9, 10차연도의

중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자들을 선정하였고 이들의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모 모두 고학력이며 가족 구성원의 수 대비 월평균 소득으로 보아 중산층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통계청, n.d.).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빈곤 및 저소득 변수의 대용물(proxy)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정부의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우,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그리고 월평균 소득과 가구원 수를 활용하여 산출한 최저생계비의 120%에 속하는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중산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가구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연속변수로써 조작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변수 자체의 평균 점수도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주양육자의 양육효능감 및 부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초등학령기 아동의 문제적 행동에 대한 순차적인 경로를 분석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비록 연구 자료의 특성상 주요 독립변수의 조작화에 있어서 불리한 점들이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스트레스 모델(FSM)의 이론적 틀(Conger et al., 2010)을 기반으로 주요 변수들 간의 시차를 두어 보다 인과 추론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가정에 대한 간접적인 이해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2019년 중국

우한 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회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기능 및 아동보호 및 발달에 대해서도 함의를 제시한다. 비록 본 연구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다차원적인 특징, 예를 들어 기간(급성 vs. 만성)이나 누적의 정도 등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지 않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경제적 역경의 성격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경제적 역경(해고, 휴직, 혹은 재정 감축 등)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만성적인 가난을 겪고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의 양육자의 기능과 아동의 행동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가난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 겪는 추가적인 경제적 고난과 비교하여 중산층의 가정에서 갑작스럽게 겪는 경제적인 타격이 불러일으키는 영향력에 있어서 과연 양육자의 스트레스 수준과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면 소득 및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회복력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연결하여 국내·외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실업률의 상승과 더불어 가정 내의 경제적 압박 및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휴교로 인하여 아동들이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부모의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이봉주, 장희선, 2021;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Weiner et al., 2020). 따라서 코로나19의 시작 전후의 빈곤 및 저소득층의 비율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내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을 발굴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아동 및 가족, 지역사회, 더 나아가 공공의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관련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논의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경제적 역경 대응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전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79.
<https://doi.org/10.20970/kasw.2009.61.1.003>
- 권은선, 구인회 (2010).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2(4), 129-148.
<https://doi.org/10.20970/kasw.2010.62.4.006>
- 김갑순, 박윤조 (2016).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 16(3), 27-44.
<https://doi.org/10.21213/kjcec.2016.16.3.27>
- 김경은 (2012). 저소득층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및 부모참여와 유아의 인지발달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9(1), 1-17.
- 김현옥, 박해선 (2018). 빈곤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가족요인에 관한 지역사회 지지요인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7(3), 31-54.
<https://doi.org/10.17643/KJCE.2018.27.3.02>
- 류정희 (2020). 우리나라 아동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83, 8-21.
-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성인역 부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2), 303-330.
- 사회보장위원회. (n.d.). 아동빈곤율.
https://www.ssc.go.kr/stats/infoStats/stats010100_view.do?indicator_id=359&listFile=stats010300&chartId=1293에서 2021년 7월 29일 인출
- 안지영, 박성연 (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양진희 (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종단적 관계 분석. *유아교육연구*, 36(1), 385-402.
<https://doi.org/10.18023/kjece.2016.36.1.017>
- 여유진 (2018).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59, 25-39.
- 오경자, 김영아 (2010).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 이경혜, 김정일 (2011). 아동의 신체적 공격성 행동과 과잉활동 행동에 부모빈곤과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놀이가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4), 209-219.
- 이봉주 (2007). 가족빈곤과 모출산 연령이 저체중아 출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

- 학회 세계학술대회 자료집, 226-230.
- 이봉주, 장희선 (2021).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폭력 잠재유형화와 잠재유형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70(1), 147-180.
<https://doi.org/10.24300/jkscw.2021.03.70.1.147>
- 이상균, 유조안 (2015). 빈곤관련 가족환경 위험요인의 잠재계층유형과 아동 문제행동 간의 관계-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실천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48, 29-57.
<https://doi.org/10.16975/kjfs.2015..48.002>
- 이은혜, 이정림, 김명순, 전해정 (2010). 저소득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31(1), 65-82.
- 이훈영 (2013). 이훈영교수의 SPSS를 이용한 데이터분석. 서울: 청람.
- 장희선, 김기현 (2014).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누적적 위험요인의 효과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7, 185-216.
- 정익중 (2005). 빈곤아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I [아이]의 성과와 가능성. *사회과학연구*, 11, 99-119.
- 정익중, 김세원 (2011). 아동·청소년발달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잠재적 유형 간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2(3), 197-230.
- 정익중, 민성혜, 박은미, 신혜원, 전해정 (2013). 빈곤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서울: 집문당.
-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https://doi.org/10.24300/jkscw.2020.12.69.4.59>
- 최형성 (2005a). 남녀아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양육행동의 인과관계 모형. *인간발달연구*, 12(4), 121-137.
- 최형성 (2005b).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4), 111-123.
- 통계청. (n.d.). 소득분배지표 작성방법 및 의의. https://kostat.go.kr/incomeNcpi/income/income_dg/4/4/index.static에서 2021년 8월 3일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bdi, H., Dowling, W. J., Valentin, D., Edelman, B., & Posamentier, M. (2002). *Experimental design and research methods* (Unpublished manuscript).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Richardson, TX.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ock, A. C. (2013). *Discover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tata* (Revised edition). College Station, TX: Stata Press.
- Allen, K., Blascovich, J., & Mendes, W. B. (2002). Cardiovascular reactivity and the presence of pets, friends, and spouses: The truth about cats and dogs. *Psychosomatic Medicine*, 64(5), 727-739.
<https://doi.org/10.1097/01.psy.0000024236.11538.41>
- Allison, P. D. (2003). Missing data techniqu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4), 545-557.
<https://doi.org/10.1037/0021-843X.112.4.545>
- Allison, P. D. (2012). *Handling missing data by maximum likelihood*. SAS Global Forum 2012,

- 1-21.
- Baker, C. E., Kainz, K. L., & Reynolds, E. R. (2018). Family poverty, family processes and children's preschool achievement: Understanding the unique role of fa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 1242-1251.
<https://doi.org/10.1007/s10826-017-0947-6>
- Bayer, J. K., Sanson, A. V., & Hemphill, S. A. (2006). Parent influences on early childhood internalizing difficultie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6), 542-559.
<https://doi.org/10.1016/j.appdev.2006.08.002>
- Benzies, K., & Mychasiuk, R. (2009). Fostering family resiliency: A review of the key protective factors. *Child & Family Social Work*, 14(1), 103-114.
<https://doi.org/10.1111/j.1365-2206.2008.00586.x>
- Berger, L. M., & McLanahan, S. S. (2015). Income, relationship quality, and parenting: Associations with child development in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7(4), 996-1015.
<https://doi.org/10.1111/jomf.12197>
- Berger, L. M., Paxson, C., & Waldfogel, J. (2009). Income and child develop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9), 978-989.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09.04.013>
- Bradley, R. H., &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371-399.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3.100901.135233>
- Brooks-Gunn, J., Duncan, G. J., & Maritato, N. (1997). Poor families, poor outcomes: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th.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 1-17).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https://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5>
- Burgdorf, V., Szabó, M., & Abbott, M. J. (2019). The effect of mindfulness interventions for parents on parenting stress and youth psychological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Frontiers in Psychology*, 10, 1336. <https://doi.org/10.3389/fpsyg.2019.01336>
- Burrell, G. L., & Roosa, M. W. (2009). Mothers' economic hardship and behavior problems in their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30(4), 511-531.
<https://doi.org/10.1177/0192513X08327887>
- Chaudry, A., & Wimer, C. (2016). Poverty is not just an indicator: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poverty, and child well-being. *Academic Pediatrics*, 16(3), 23-29.
<https://doi.org/10.1016/j.acap.2015.12.010>
- Choi, J.-K., Palmer, R. J., & Pyun, H.-S. (2014). Three measures of non-resident fathers' involvement,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low-income single-mother families.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9(3),

- 282-291. <https://doi.org/10.1111/cfs.12000>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https://doi.org/10.1006/drev.1997.0448>
- Collins, W. A., Madsen, S. D., & Susman-Stillman, A. (2002). Parenting during middle childhood.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Children and parenting* (pp. 73-10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https://doi.org/10.4324/9780429440847-3>
- Conger, R. D., Conger, K. J., & Martin, M. J. (2010).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685-704. <https://doi.org/10.1111/j.1741-3737.2010.00725.x>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2), 541-561. <https://doi.org/10.2307/1131401>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C., & Brody, G. H.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2), 179-193. <https://doi.org/10.1037/0012-1649.38.2.179>
-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1), 209-217. <https://doi.org/10.2307/1129878>
- Crockenberg, S. B. (1981). Infant irritability, mother responsiven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n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2*(3), 857-865. <https://doi.org/10.2307/1129087>
- DelGiudice, M. (2018). Middle childhood: An evolutionary-developmental synthesis. In N. Halfon, C. Forrest, R. Lerner, & E. Faustman (Eds.), *Handbook of life course health development* (pp. 95-107). Cham: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3-319-47143-3_5
- Dennis, J. M., Parke, R. D., Coltrane, S., Blacher, J., & Borthwick-Duffy, S. A. (2003). Economic pressure,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adjustment in Latino familie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4*(2), 183-202. <https://doi.org/10.1023/A:1023706424725>
- Duncan, G. J., Ziol-Guest, K. M., & Kalil, A. (2010). Early-childhood poverty and adult attainment, behavior, and health. *Child Development, 81*(1), 306-325.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9.01396.x>
- Eamon, M. K. (2001).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 ecological systems analysis. *Social Work, 46*(3), 256-266. <https://doi.org/10.1093/sw/46.3.256>
- Eccles, J. S. (1999). The development of children ages 6 to 14. *The Future of Children, 9*(2),

- 30-44. <https://doi.org/10.2307/1602703>
- Elder Jr, G. H., Eccles, J. S., Ardel, M., & Lord, S. (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3), 771-784. <https://doi.org/10.2307/353931>
- Elsaesser, C., Gorman-Smith, D., Henry, D., & Schoeny, M. (2020). The longitudinal relation between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nd academic engagement during adolescence: Exploring families' protective ro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5(17-18), 3264-3285. <https://doi.org/10.1177/0886260517708404>
- Engle, P. L., & Black, M. M. (2008).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al outcome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34(1), 243-256. <https://doi.org/10.1196/annals.1425.023>
- Gershoff, E. T., Aber, J. L., Raver, C. C., & Lennon, M. C. (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8(1), 70-95.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7.00986.x>
- Harandi, T. F., Taghinasab, M. M., & Nayeri, T. D. (2017). The correlation of social support with mental health: A meta-analysis. *Electronic Physician*, 9(9), 5212-5222. <https://doi.org/10.19082/5212>
- Hardaway, C. R., Larkby, C. A., & Cornelius, M. D. (2014). Socioemotional adjustment as a medi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and academic performance in low-income adolescents. *Psychology of Violence*, 4(3), 281-293. <https://doi.org/10.1037/a003637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Kia-Keating, M., Nylund-Gibson, K., Kia-Keating, B. M., Schock, C., & Grimm, R. P. (2018). Longitudinal patterns of self-regulation among ethnic minority children facing povert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2), 398-411. <https://doi.org/10.1007/s10826-017-0883-5>
- Kline, P. (1994). *An easy guide to factor analysis*. New York, NY: Routledge.
- Landers-Potts, M. A., Wickrama, K. A. S., Simons, L. G., Cutrona, C., Gibbons, F. X., Simons, R. L., & Conger, R. (2015). An extension and moderational analysis of the family stress model focusing o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Family Relations*, 64(2), 233-248. <https://doi.org/10.1111/fare.12117>
- Lee, C. Y. S., Lee, J., & August, G. J. (2011). Financial stress,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Underlying processes. *Family Relations*, 60(4), 476-490. <https://doi.org/10.1111/j.1741-3729.2011.00656.x>
- Lee, J. S., & Lee, K. (2016). Material hardships and social support among Australian families with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 Studies*, 25(5), 1539-1549.
<https://doi.org/10.1007/s10826-015-0327-z>
- Lemper, J., Clark-Lempers, D., & Simons, R.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1), 25-39.
<https://doi.org/10.1111/j.1467-8624.1989.tb02692.x>
- Letourneau, N. L., Duffett-Leger, L., Levac, L., Watson, B., & Young-Morris, C. (2013).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1(3), 211-224.
<https://doi.org/10.1177/1063426611421007>
- Mah, V. K., & Ford-Jones, E. L. (2012). Spotlight on middle childhood: Rejuvenating the 'forgotten years'. *Paediatrics & Child Health*, 17(2), 82-83.
<https://doi.org/10.1093/pch/17.2.81>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https://doi.org/10.1037//0003-066x.53.2.185>
- Neppl, T. K., Senia, J. M., & Donnellan, M. B. (2016). Effects of economic hardship: Testing the family stress model over tim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0(1), 12-21.
<https://doi.org/10.1037/fam0000168>
- Parke, R. D., Coltrane, S., Duffy, S., Buriel, R., Dennis, J., Powers, J., French, S., & Widaman, K. F. (2004). Economic stress, 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in Mex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5(6), 1632-1656.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807.x>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https://doi.org/10.3758/BF03206553>
- Sampson, R. J., & Laub, J. H. (1994).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A new loo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65(2), 523-540. <https://doi.org/10.2307/1131400>
- Scannell, C. (2020). Parent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through adversity. In L. Benedetto & M. Ingrassia (Eds.), *Parenting - Studies by an exocultural and transactional perspective* (pp. 1-16). London, United Kingdom: IntechOpen.
<https://doi.org/10.5772/intechopen.91735>
- Stone, S. I., & Rose, R. A. (2011). Social work research and endogeneity bias. *Journal of the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 2(2), 54-75. <https://doi.org/10.5243/jsswr.2011.3>
- Taylor, R. D., Budescu, M., Gebre, A., & Hodzic, I. (2014). Family financial pressure and maternal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adjustment: Moderating effects of kin social support in low income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2), 242-254.
<https://doi.org/10.1007/s10826-012-9688-8>
- Taylor, S. E. (2011). Social support: A review. In H. S. Friedman (Ed.), *The Oxford handbook of health psychology* (pp. 189-214). Oxford

-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5342819.013.0009>
- Taylor, S. E., & Seeman, T. E. (1999). Psychosocial resources and the SES-health relationship.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896, 210-225.
<https://doi.org/10.1111/j.1749-6632.1999.tb08117.x>
- Weaver, C. M., Shaw, D. S., Dishion, T. J., & Wilson, M. N. (2008). Parenting self-efficacy and problem behavior in children at high risk for early conduct problems: The mediating role of maternal depress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1(4), 594-605.
<https://doi.org/10.1016/j.infbeh.2008.07.006>
- Weiner, D., Heaton, L., Stiehl, M., Chor, B., Kim, K., Heisler, K., Foltz, R., & Farrell, A. (2020). *Chapin hall issue brief: COVID-19 and child welfare: Using data to understand trends in maltreatment and response*. Chicago, IL, USA: Chapin Hall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 Weinger, S. (1998a). Poor children “know their place”: Perceptions of poverty, class, and public messages.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5(2), 100-118.
- Weinger, S. (1998b). Children living in poverty: Their perception of career opportunities. *Families in Society*, 79(3), 320-330.
<https://doi.org/10.1606/1044-3894.993>
- Zilanawala, A., & Pilkauskas, N. V. (2012). Material hardship and child socioemotional behaviors: Differences by types of hardship, timing, and dur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4), 814-825.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2.01.008>

1 차원고접수 : 2021. 10. 07.

수정원고접수 : 2022. 02. 15.

최종게재결정 : 2022. 03. 23.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and the Moderating Role of Maternal Social Support**

Lee, Hana

Dept.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Ulsan

Kang, Hyeyoung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Chung, Ick-Joong

This study examines how family economic hardship is associated with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rough family stress processes and whether maternal social support would moderate the proposed mediated pathways. Using 8, 9, and 10th waves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1,598 families were includ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bootstrapping procedures was employed to examine whether the associations between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child behavioral problems would be mediated through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Group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levels of maternal social support were also examined in pathways linking family economic hardship to child behaviors. Results showed that family economic hardship was associated with poor parenting efficacy, which in turn impacted negative parenting. Poor parenting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chil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Furthermor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were observed. Group differences were also identified in various pathways, suggesting that children and their caregivers in the lower levels of maternal social support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higher levels of negative outcomes. Not only did the findings demonstrate the theoretical pathways proposed by the Family Stress Model, but they also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building maternal social support networks.

Keywords: economic hardship, family stress processes, social support, child behaviors